



“축산발전기금 폐지 절대 안돼”

— 9월 13일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방안 공청회' 열려

축산업발전기금 폐지와 관련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방안 공청회'가 9월 13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최근 정부에서는 축산업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이 축산업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축발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 축산업계는 2000년 이후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방역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축발기금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축발기금은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축산업 전반에 지원하는 것이 옳은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축발기금이 농안기금이나 농특회계에 통합시 축산업에는 소홀히 쓰이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현재 축발기금은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28%에 달하는 효자산업이라는 점과 '00~03년 구제역과 돈열이 발생했을 때에도 생활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설, 가축수매자금 등 즉시 전용을 통해 신속하게 방역활동을 지원해 조기에 질병을 종식시키는 역할을 해냈다는 점에서도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농림부, 축산분뇨 액비사업 재개

— 사료공정규격 개정, 구리·아연 첨가량 대폭 줄이기로

감사원 감사로 중단위기에 놓여있던 축산분뇨액비사업이 재개된다. 최근 농림부는 10월부터 액비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가축분뇨액비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을 통해 현재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비료공정규격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비료공정규격을 적용해 만든 액비 외 자가소비용 액비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 및 액상성상, 토양 작물별 특성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리·아연의 허용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액비사건의 발단이 된 감사원 감사결과는 기준으로 사용된 액비의 비료공정규격이 시행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줄속감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림부, 향후 10년간 축산물브랜드사업 핵심 지원

- 2013년까지 브랜드 사육비율 돼지 70%까지

농림부는 '05년부터 브랜드사업(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경영체중 브랜드 컨설팅이 필요한 경영체를 선정해 경영, 재무, 마케팅 등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브랜드사업 선정 경영체중 지역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 10개소에 개소당 지원금액 1억원 한도로 경영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2005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은 축산업이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며, 산지 농가의 조직화와 안정적인 판로 구축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2013년까지 축산구조를 우수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개편해 브랜드 사육비율을 '03년 돼지 41.4%에서 '13년 70%까지 끌어올리고, 브랜드 경영체의 취약한 관리 수준을 높여 소비자 안전 지도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 고유가 시대 대비 유통비 지원

농림부는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 유통비를 지원하고 에너지 절감형 농기계에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농림부 세부대책에 따르면 시설원에 수출농가에 대해 농가당 최고 3천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농안

기금에서 유통대가 지원되고 이들 농가가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업종합자금을 지원한다.

종돈장 혈청검사 수수료 징수 유예

종돈장에 대한 구제역, 돈열, 돼지오제스키병 등 의무적 검사대상 질병 혈청검사 수수료가 부과가 유예된다. 농림부는 최근 “종돈장방역 관리요령(농림부고시 제2003-40호, '03. 9. 5)” 제 10조 및 부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역, 돈열 및 돼지오제스키병 등에 대한 혈청검사 수수료 납부와 관련, 종돈장의 부담증가 등을 고려해 혈청검사 수수료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무적 검사대상 질병 이외에 가축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실시하는 혈청검사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납부해야 한다.

PRRS, 사람에게 전염 안된다

- 살모넬라균, 65도 10분 이상 가열시 전염 문제 없어

병든 돼지 시중 유통 사건과 관련 농림부는 8월 27일 해당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및 출입 통제, 소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9월 3일 밝혔다.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관련 농장 돼지는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과 돼지살모넬라(S. typhimurium)에 감염된 것으로 PRRS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돼지에게만 전염되며, 전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고 농림부는 강조했다. 다만 돼지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식품이나 감염 가축 분변에 오염된 음식을 먹었을 경우 사람도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농림부는 살모넬

라균의 경우 65도에서 10분 이상 끓이면 죽을 정도로 열에 약하다며 오염된 돼지고기라도 익혀서 먹었다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살모넬라균의 경우 도축과정에서 돼지를 매단 상태로 내장을 적출, 장 내용물이 고기에 묻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가축질병 종합관리대책을 마련, 축산관련 공무원 인력 232명을 보강하고 도축 검사도 강화해 병든 가축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돈열 항체양성률 95% 이상 형성

- 7월 돈열 항체양성률 95.3%

농림부가 최근 발표한 '04년 1~7월간 돈열 항체검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돈열 항체 양성률이 95.3%로 나타났다. 비육돈, 번식돈, 자돈을 모두 포함한 총괄 검사 농가수 1천5백23호, 검사두수 1만6천652두를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률이 95.3%를 기록했고, 지난 6월 항체 양성률 96.5%에는 약간 못 미쳤지만 금년 1월 이후 꾸준히 95% 이상의 양성률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비육돈 농가 1천156호, 두수 1만4천240두를 항체 검사한 결과 양성률은 95%, 번식돈 농가 364호, 두수 2천406두 검사 결과 97%, 자돈 농가 3호, 6두를 항체 검사한 결과 100% 양성률을 각각 기록했다.

일반은행도 축산발전기금 취급

일반은행도 축산발전기금 용자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8월 14일 축산발전기금 취급을 농협과 함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도 취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의 축산법 시행령중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축산업 등록대상중 가축사육시설 면적 300제곱미터 초과하는 소사육업, 50제곱미터 초과하는 양돈업, 300제곱미터 초과하는 양계업과 함께 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사육업을 신규로 추가해 위생관리를 강화했으며, 종전에는 농림부장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용자하는 경우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을 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도 용자할 수 있도록 용자취급기관을 확대했다.

올해 축산업자 건강보험료 경감률 30%로 확대

- 농림부 기존 22% 경감에 8% 추가지원 · 올해 4/4분기부터 시행 예정

최근 농림부는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03년 기준 22%를 경감(보건복지부 시행)해 주던 것을 농어촌 및 준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한하여 30%(농림부 8% 추가지원)로 확대 경감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선 올해에는 8%를 지원하고 2005년 18%, 2006년 28%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 이와 함께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22% 경감률을 합하게 되면 올해 30%, 2005년 40%, 2006년 50%로 점차 확대되게 된다.

건강보험료 추가 경감 대상은 지역건강보
험료 납부 세대중 노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
역의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
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에서는
각 지역 읍·면·동장에 농어업인 여부를 확
인하면 된다.

진동기 및 과정 소개와 더불어 SGS 관계자가
참여해 HACCP 인증농가에 인증서를 수여했
으며 진길부 조합장은 각 농장 HACCP 팀장에
표창을 했다. 이어 박광욱 대표와 안장현 대
표의 HACCP 인증농가 사례 발표 및 김현주
과장의 도드람 HACCP 시스템에 관한 사례 발
표가 있었다.

도드람양돈농협, 양돈장 HACCP 적용사례 발표회 개최

도드람양돈농협은 8월 27일 금요일 오전 10
시부터 이천 미란다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HACCP 인증농장의 인증서 수여식 및 양돈장
HACCP 적용사례 발표회'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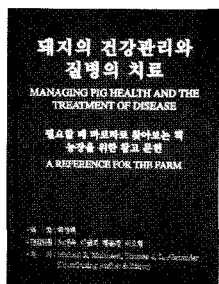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서는 정현규 상무의 HACCP 추

"이동가축 방역관리 확인시스템" 시범 ON-LINE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
원은 이동가축 방역
관리 확인시스템 모
델개발 시범사업 추
진과 관련 "이동가축

"Managing Pig Health and The Treatment of Diseases"의 한글판 "돼지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치료" 출간



영국의 양돈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켰던 가스수
의그룹(Garth Veterinary
Group)의 창시자이고 세
계적인 양돈수의사인 마
이크 뮈헤드 박사(Dr.
Mike Muirhead)와 토마스
알렉산더 박사(Dr. Thomas Alexander)가 공
동으로 저술하고, 영국의 5M Enterprises 출판
사가 출간한 "Managing Pig Health and The
Treatment of Diseases"의 한글판 "돼지의 건
강관리와 질병의 치료"가 출간되었다.

서울대 출신인 박영혜 수의사가 번역을 하
였고, 현재 양돈현장에서 활동하는 컨설턴트

와 수의사인 노재욱 박사, 이오형 박사, 황윤
재 수의사, 이권희 수의사가 공동으로 한국
의 현실과 접목하여 편집하였다.

현장의 관리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배치하였으며 각 구간별, 단계별, 질
병별로 구분하여 이해가 쉽도록 편집하였다.
질병의 증상과 치료, 예방 등의 내용 뿐만아
니라 질병에 따른 사양관리 기법까지 다른
책이다.

- 문의처 : 피그벳출판사(전화/팩스 : 031-675-2213), 이권희 수의사 (핸드폰 : 011-244-0212)
- 가격 : 120,000원, 송금처 : (농협)088-12-121801 (예금주)이권희

2004 국제 양돈 심포지엄 개최 안내

- 10월 12일부터 3일간 농업 서울지역본부에서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2004 국제 양돈 심포지엄'이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서울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등이 주최하고, 농림부, 산자부, 양돈협회, 농협중앙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2004 국제 양돈 심포지엄'에서는 브랜드, 인력교육, 생산이력제, 환경과의 조화 등 최근 우리 양돈현안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

한 해외 양돈선진국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현안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비는 개인당 1일 5만원씩이며, 3일 등록시 12만원이다. 또한 양돈농가들의 경우 양돈협회를 통해 단체로 신청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5인이상 단체등록시에는 1일 4만원, 3일 등록시 10만원이다.

□문의처 : 전화 02-880-4801, 02-878-5838
서울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방역관리 확인시스템" 홈페이지를 9월 10일 오픈했다.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 실시된 이 홈페이지에는 동 사업 계획 및 개최 개요, 홍보계획, 1차 중간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참여 8개 시·군 양돈농가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 교육 등 관련 내용을 게시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를 실을 예정이다. 인터넷 주소[<http://www.nvrqs.go.kr/extra/index.html>]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충남도청 축산과의 축산정책방향과 경과보고 등을 듣고 축산업 안정화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협의회는 이번 창립대회 개최로 축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품목중심 축산연합회를 육성하고, 축종별 단체의 활성화 및 각종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 가축질병 공동 방역과 신속한 대처로 축산업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당진군 축산단체협의회 창립대회 개최

당진군축산단체협의회는 9월 21일(화) 오전 10시~12시(개회 11시) 당진군 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축산단체 회원 및 축산농가, 관련 기관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군 축산단체협의회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

2004 축산식품의 유해잔류 물질 관리 국제심포지엄

- 10월 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0월 14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에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과 축산식품의 잔류물질 관리'라는 주제아래 "2004 축산식품의 유해잔류물질 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축산물 수입과 관련해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관심에 대응하기 위한 검사체계를 강화하고, 축산식품의 잔류물질 허용기준과 분석방법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최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04 농림과학기술대전 국내 처음으로 개최

농업 과학기술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주최하고, 농

림기술관리센터가 주관한 '2004 농림과학기술대전'이 9월 16~17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번 기술전은 16일 '2004 농림과학기술대전' 개막식과 제7회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우수기술전시회와 우수기술발표회를 가졌다. 국내에서 처음 개최된 '2004 농림과학기술대전'은 농림업의 연구개발 분위기를 확산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등 첨단농업의 실용화와 산업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돈**

쾌적한 돈사 환경은 환풍기 전문 생산업체에 문의

ISO 9001 인증취득





고압 배기팬

- 용도 : 양돈, 양계장, 내부의 암모니아 가스 및 분진, 악취 배출에 적합하게 설계됨
- 특징 : 아연도 강판과 EGI 철판 위에 특수도장으로 부식이 되지 않도록 제작된 축사배기 전용 환풍기



축사입기(A-550/600/700)

- 용도
 -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축사내부로 송풍하는데 최적
 - DUCT를 연결하여 사용
 - 양돈, 양계장에 적합
 - 화훼, 원예, 비닐하우스
 - 기타



타이머(HT-45(TIMER))

- 용도
 - 저렴한 실내환기에 알맞게 시간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정지와 작동하게 하는 환풍기 전용타이머임.
 - 양돈, 양계장, 환기시스템 등에 사용
 - 기타 일반용도에도 사용가능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도사리 662번지

TEL : 031-981-8312(대표) FAX : 031-981-6128

www.HSfanteck.com